

정부 · 기관소식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출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경영의 핵심요소인 정보·교육·홍보분야의 업무를 통합 수행할 전담 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원장 하영효, 이하 농정원)이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농정원은 3개 기관(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업인 재개발원, 농촌정보문화센터)의 고유 업무인 농림수산사업의 정보화, 정예농어업인 육성, 농어업·농어촌 가치 확산의 고도화 및 책임 경영을 위해 본부체제를 도입했다. 또 통상정책과 국제협력에 관한 정보 지원, 농수산물에 대한 지식 및 산업재산권 보호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을 신설하는 등 4본부 2실 15팀 정원 108명으로 조직체계를 갖췄다.

하영효 초대 원장은 “기관 출범에 맞춰 농식품 IT 융합·활용 촉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귀농·귀촌 정착 지원, 농식품 글로벌 협력 지원 등 농식품·농어촌 분야의 신가치창출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가축 항생제 사용량, 조사 이래 가장 낮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이하 검역검사본부)는 축산 항생제 안전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와 공동으로 수행한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조사” 사업 결과에서 ‘11년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이 조사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1년 축산용 항생제 전체 사용량은 956톤으로 01년부터 사용량을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01년(약 1,595톤)에 비해서는 약 40%가 감소하였다.

이는 ‘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해온 배합사료제조용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감축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전체 축산용 항생제 사용량 중 배합사료제조용은 ‘11년 101톤으로 ‘10년(224톤)에 비해 약 55%, ‘01년(766톤)에 비해서는 약 87% 감소함.

모든 축종에서 항생제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돼지에서 ‘11년에 459톤이 사용되어 ‘01년(918톤)의 절반 수준(약 50%)으로 감소하였으며, 닭은 약 44%, 소는 약 37%가 감소하였다.

항생제 종류별로는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가 '01년 약 752톤에서 '11년 약 308톤으로 약 59% 감소하였으며, 설파계 항균제는 '01년 237톤에서 '11년 100톤으로 약 58% 감소하였다.

검역검사본부는 농식품부와 함께 수의사처방제 추진, 친환경 축산 확대, 지속적인 항생제 사용량 조사와 더불어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재평가, 축종별 적정 항생제사용 가이드라인 설정·보급 및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해 항생제 사용량을 꾸준히 줄여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축산 선진국 호주·뉴질랜드와 연구협력

축산식품 안전성과 친환경축산 분야 선진화 기대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최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유기축산, 동물복지 연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 선진국인 호주, 뉴질랜드와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5월 15일 축산유전체 연구협력 강화를 위해 2010년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뉴잉글랜드 대학을 방문했다.

이는 현재 공동연구 중인 소 유전체분석결과를 활용한 우수종축 조기선발기술을 현장에 빨리 접목

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5월 16일에는 가축유전육종 연구소와 앵거스 비프 협회를 방문해 호주의 선진화된 축산연구 개발동향과 운영관리체계 등을 국내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18일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을 방문, 축산식품공학과 동물생명공학 등 축산기술 분야에 있어 연구개발과 교류 확대를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상호 연구원 교류를 추진하는 한편, 식품을 통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위해요소에 대한 현장진단 기술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식품안전관리의 국제적 연구동향은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이 분야에 공동연구도 진행하는 등 축산물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있어 교류의 길이 열릴 예정이다.

이어 5월 21일에는 친환경 축산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뉴질랜드 왕립연구소를 방문해 친환경과 유기축산, 동물복지, 형질전환, 축산식품 품질 연구 그룹과 연구협력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공동연구와 연구원의 상호교환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해 상호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장원경 원장은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연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최근 국제적으로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축산식품의 안전관리와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야의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주호 본부장, 산하기관 초도순시 및 유관기관 · 단체 방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주호 본부장은 5월 22일 (화)부터 8개 도본부를 초도순시하며, 축산관련 기관 · 단체 등을 방문하여 구제역(FMD) · AI(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방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초도순시는 강원(5.22), 경기(5.23), 전남(5.30), 전북(5.31), 충남(6.5), 경북(6.12), 경남(6.13), 충북(6.14) 순으로 방문한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국내 최초 축산물HACCP 지정 부화장 탄생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 이하 기준원)은 5월 21일 충청남도 보령소재의 (주)농업회사법인 삼화원종 야현부화장을 제1호 축산물 HACCP 부화장으로 지정하고 23일 지정서 수여식을 가졌다.

(주)농업회사법인 삼화원종 야현부화장(대표 배성황)은 충청남도 보령시 청소면 야현리에 위치한 1회 입란능력 약17만개 규모의 부화장으로, 지난 4월 10일 고시된 사육단계(부화업) HACCP평가기준에 따라 국내 최초 축산물HACCP 지정 부화장이 되었다.

(주)농업회사법인 삼화원종은 이미 지난 2008년 7월 갈산농장을 시작으로 7개의 종계장에 HACCP를 지정받았으며, 청소부화장과 최근 신축한 천일농장(종계장)에 HACCP적용을 추진하는 등 가금사육단계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석희진 원장은 “이번 부화장 HACCP지정은 종계장에서 농장까지 가축사육단계 HACCP Chain System 구축으로 위생 · 안전관리 연계체계의 구축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금류의 HACCP 지정은 2008년 종계장을 시작으로, 산란계농장, 육계농장, 오리농장 및 메추리농장에 적용되어 왔으며, 전업농 기준으로 닭과 오리농장에서 각각 50.8%, 11.5%의 지정율(5월21일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녹색식생활 홍보관 운영

농림수산물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대치동 서울무역전시관(SETEC)에서 개최되는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녹색식생활 홍보관을 운영했다.

이번 박람회는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서울특별시청소년활동

동진흥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이다.

녹색식생활은 aT와 농림수산물부가 ‘환경·건강·배려’를 핵심가치로 삼아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2009년부터 다각적으로 전개 중인 범국민 식생활 운동이다.

서울무역전시관(SETTEC) 제1관에 마련된 녹색식생활 홍보관에서는 녹색식생활 기본개념 홍보, 미각 체험, 녹색 물레방아 식단 점검 체험, 웹툰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의 다양한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기 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홍보했다.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본 박람회는 중·고등학생이 주요 관람객이므로 녹색식생활 홍보를 통한 바른 식습관 형성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홍보관 프로그램도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식생활을 점검할 수 있는 녹색물레방아 체험과 웹툰공모전 수상작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농협,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 개최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안)” 및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방안”

농협과 축산단체협의회는 5월 25일(금) 오후 2시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지난 5월 4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 대책의 가축분뇨법 주요개정(안)과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환경부, 농림 수산식품부 등 정부관계자, 축산농가, 농협 및 축산관련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의 목적은 이해당사자가 모인 가운데 서로의 입장과 의견 교환 등을 통해 강화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짚어보고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축산업 관계자들은 금번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로의 강화, 농가가 생산한 퇴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에 따라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조치 등은 한미 FTA, BSE(소해면상뇌증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사료값 인상, 축산물시세 하락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축산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대책으로 축산업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축산농가·농협·축산관련 단체 등 3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이해 당사자간 토론의 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